

### 삼성전자, 인체공학형 프리미엄 모니터 출시

삼성전자가 삼중 접이식 스탠드를 장착해 마치 사람의 팔 관절처럼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인체공학형 프리미엄 LCD 모니터를 국내외에서 동시에 출시한다.

세계 최초로 이중 접이식(Dual-Hinge) 스탠드를 개발해 모니터 디자인의 혁신을 이뤄 낸 삼성전자가 이번엔 삼중 접이식(Triple-Hinge) 스탠드를 장착한 인체공학형 프리미엄 LCD 모니터 2종(싱크마스터 매직 CX712P/CX912P)을 출시한다고 7월 2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선보인 모니터는 스탠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17인치와 19인치로 세계 최대인 170m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 상하좌우 어느 위치에서나 사용자가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이 제품은 전원 버튼 이외의 모든 버튼을 없애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별도로 연결된 케이블 박스에 모든 케이블 연결 단자를 장착하게 함으로써 케이블 연결 시 모니터를 돌리거나 허리를 구부려서 작업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이 제품은 이런 인체공학적 편의성을 인정받아 최근 대한인간공학회에서 선정하는 인간공학디자인상의 컴퓨터 관련기기 부문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간공학디자인상은 사단법인 인간공학회에서 주최, 사용 용이성·효율성·기능성·감성품질·안전성·보전성·시장성을 모두 고려하여 소비자 인체에 가장 편하게 설계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 LG전자, 2세대 로보킹(ROBOKING) 출시

LG전자가 기존 로봇 청소기에 비해 성능을 대폭 강화한 100만원대 2세대 로보청소기 '로보킹'을 출시했다.

2세대 로보킹은 고성능의 진공흡입청소소를 하는 로봇 청소기이면서 고객이 수용 가능한 가격을 제시한 제품, 즉 기술력과 시장성 모두를 실현한 대표적인 매스티지(Masstige, 대중적 명품)제품으로 로봇청소기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출시된 2세대 로보킹은 149만원으로 1세대 로보킹(249만원)보다 성능은 대폭 향상되고 가격은 낮아졌다.

현재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은 100~200만원대의 프리미엄 제품(LG 로보킹, 일렉트로룩스의 트릴로바이트)과 20~30만원대의 중국산 저가 로봇 청소기, 30~50만원대의 국산 및 수입 제품군으로 형성돼 있다.

로보청소기로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고급 로봇청소기는 모터, 배터리 등 부품 가격이 워낙 비싸 현재 기술에서 100만원 이하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 공백기를 20~30만원짜리 무난한 로봇청소기라고 할 수 있는 중국산 제품이 쏟아져 나와 낮은 성능과 품질로 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낮은 성능과 품질로 저가 중심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시장에 LG 로보킹이 200만원대 제품보다 고성능 부품을 사용하면서도 100만원대인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로봇 청소기의 매스티지 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시장 성장의 핵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레전자, 프리미엄급 LCD모니터 출시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인 이레전자산업은 듀얼хин지 LCD 모니터를 프리미엄급과 일반형으로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프리미엄급, 일반형으로 각각 17인치와 19인치로 출시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프리미엄급 듀얼хин지 LCD 모니터는 DDC/CI(Display Data Command Interface) 프로토콜을 사용해 모니터의 기능을 마우스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튠 기능과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가지고 있어 젊은 세대의 감성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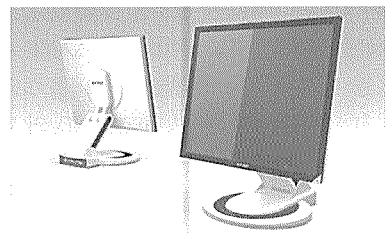
이 제품들은 우선 힌지의 특성상 상하 높낮이 조절과 회전이 270도까지 가능해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며 슬림한 베젤 디자인이 그 특징이다.

패널 기능면에서도 8m/s로 빠른 응답속도를 보인다. 일반형은 180도 회전이 가능하다.

프리미엄급 모니터의 경우 마우스를 이용해 화면, 화질, 미세조정을 가능케 하는 디스플레이튠 기능과 원색에 가까운 색상보정을 도와주는 리퀴드 컬러 기능이 내장돼 있다.

여기에 모니터 회전시 화면의 자동회전 기능을 가능케한 오토피벗 기능은 세로로 문서 작업 및 웹 서핑시 업무효율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어 최근 전문가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기능이다.

특히 프리미엄급 제품은 기업시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능확장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LCD 모니터 시장은 단순 모니터에서의 IT 컨버전스형 LCD 모니터로의 판도변화가 전망된다.



### 삼성SDI, 휴대용 부탄가스로 노트북 구동한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의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SDI가 휴대용 부탄 캔으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연료전지를 개발했다.

이 부탄 연료전지는 일반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사용되는 220g의 소형 부탄 캔을 연료로 사용해 100W의 평균 출력으로 5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또, 레저용 소형 컬러TV(60W 기준)는 8시간 이상, 노트북(20W 기준)는 2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TV, DVD 플레이어, 전기 Lamp, 오디오 등을 동시에 구동할 수 있어 레저활동은 물론 일상 생활의 비상용 전원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이 제품은 부탄에서 고효율의 수소를 발생시킨 후 이 수소가 스택(Stack:전기 발생장치)를 통과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며, 안전 시스템을 적용해 연료전지 안전성도 극대화했다.

데스크탑 크기의 연료전지시스템에 부탄 가스 캔을 삽입해 가동하게 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는시스템에 부착된 전원 코드를 통해 전자제품에 전달된다. 일반 전지와 달리 최종 불순물이 '물'로 무공해 청정 전지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충전이 필요 없고 출력도 높다.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인 부탄(1통 700원)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 야외 레저활동



동과 정전 시 비상용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 KEC, 고효율 고주파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RF-SBD) 국산화 개발 성공

국내 최대 개별 반도체 회사인 KEC는 국내 최초로 고효율 고주파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RF-SBD)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9월부터 국내외 판매에 들어간다.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SBD, Schottky Barrier Diode)는 일반 다이오드와 달리 금속과 반도체의 접합으로 이루어져 고속 동작이 가능하며, 이동기기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핸드폰, PDA, DSC, NOTE BOOK 등 첨단 이동기기의 정류 회로나 검파 회로에서는 높은 주파수에서 적은 용량 특성을 낮은 순방향 전압과 높은 역방향 전압이 요구되는 고효율의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RF-SBD)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량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KEC가 금년 2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개발에 성공한 고효율 고주파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RF-SBD)는 용량 특성을 극소로 낮추어(10~100pF → 1~3pF), 높은 주파수 영역(300Mhz이상)에서 경쟁사 제품보다 고속 스위칭(SWITCHING) 동작이 가능하며, 소모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초박형 표면실장형인 TFSC PACKAGE (08\*06\*038)에 탑재함으로써 이동기기의 회로설계시 실장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에이스테크놀로지, 휴대폰 부품업체 사업 다각화

최근 휴대폰 부품 업체들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연관 분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6월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이스테크놀로지·인탑스·파트론 등은 기존 사업에 추가적으로 보유 기술에 근거한 다른 시장으로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

국내 안테나 관련 대표적인 업체인 에이스테크놀로지는 고객 편중도를 낮추고 신규 수익원을 찾기 위해 최근 HD 라디오 안테나 모듈 시장에 진출했다. HD 라디오는 HD TV와 마찬가지로 듣고 싶은 방송을 원하는 때에 청취할 수 있도록 고안, 생산된 제품으로 이미 미국 시장에서 상용화 단계까지 들어간 제품이다.

이 회사는 미국 인비쿼티에서 개발한 미국 방식의 지상파 디지털오디오방송(DAB)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방송 수신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올 초 시제품을 출시했다. 현재 미국에서 수신기 업체와 제품 공급을 협의 중이며 올해 말이면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사는 지그비 스위치를 탑재한 콘트롤 모듈을 개발중이다.

이미 휴대폰 안테나와 수정발진기를 생산하고 있는 파트론은 아직까지 전파 관련 듀플렉스나 필터 부분의 매출이 크지만 수정발진기와 안테나 부분의 매출이 상승세여서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휴대폰 시장을 타깃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소 동떨어진 제품이라도 고객이 같다면 신규시장을 개척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제거될 수 있다"고 말했다.